

##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: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

정호성

### (연구 배경)

- 경제규모에 비해 **과도한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\***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부동산·임대업을 중심으로 **자영업 차주\*\***의 대출은 꾸준히 증가

\* 한국은 스위스, 호주, 노르웨이, 캐나다 스웨덴과 함께 WEF(World Economic Forum)가 제시한 가계부채 임계치를 초과하고 있음(출처 : 해외경제포커스, 제2017-29호, 2017.8, 한국은행)

\*\* 자영업 차주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로서, 자영업 차주의 대출은 동 차주가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의 합산 금액으로 정의

- 미국의 금리정상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**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차주의 부실요인과 함께 가계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을 점검해 볼 필요**

### (분석 방법)

- 한국은행의 **가계부채 패널자료**(2012년 3월 ~ 2017년 6월)를 이용하여 차주별 **부도확률과 금융취약성 지표인 기대손실액을 추정하고 동 기대손실액의 금융업권별 현황과 금융업권간 상호연계성을 분석**

- 차주를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(순수가계)로 구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**동적프로빗모형(Dynamic Probit Model)**을 적용하여 각 집단의 **부도요인을 추정**

- **종속변수**로는 차주의 **부도여부**(90일 이상 연체)를 사용
- **설명변수**로는 **금리요인**(코픽스 금리, 대출성격별 가산금리, 신용등급별 가산금리), **대출요인**(대출잔액, 최근 6개월 대출여부), 차주가 거주하는 **지역경제 요인**(주택가격지수, BSI지수)을 고려

문의처: 정호성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 (☎ 5308)

※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차주별 추정 부도확률을 이용하여 차주별 기대손실액(Expected Loss at Default)을 추정하고 동 기대손실액의 금융업권별 현황과 금융업권간 상호연계성을 분석
  - 금융업권간 상호연계성은 동일 차주의 금융업권간 기대손실액 합의 크기를 나타냄
  - ※ 차주의 기대손실금액을 이용한 금융업권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본 논문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임

(분석 결과)

가. 가계대출 부도요인

- (금리요인) 차주의 대출성격별 가산금리\*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상승은 비자영업 차주보다 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 상승에 3~4배 더 큰 영향을 미침

\* 대출성격별 가산금리는 차주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 및 대출종류로 결정됨

- 차주의 대출성격별 가산금리 1%p 상승은 각각 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을 0.127%p, 비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을 0.035%p 상승시킴
- 차주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1%p 상승은 각각 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을 1.010%p, 비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을 0.242%p 상승시킴

- (대출요인) 차주의 대출잔액의 변화도 비자영업 차주보다 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에 2~3배 더 큰 영향을 미침

- 대출잔액 1% 증가는 자영업 및 비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을 각각 1.10%p와 0.469%p 상승시킴
- 최근 6개월간 추가차입은 자영업 및 비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을 각각 1.04%p와 0.323%p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

□ 금리요인과 대출요인이 **부도확률 변화**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**금리요인이 대출요인에 비해 부도확률 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분석**

- 최근 5년간(2012.6→2017.6) 자영업(비자영업) 차주의 부도확률은 **금리요인**으로 평균 **0.75%p(0.27%p)** 하락한 반면 **대출요인**으로 인한 하락폭은 **0.32%p(0.05%p)**에 그침

**나.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**

□ 차주의 **부도확률 감소추세**에 따라 **금융권의 기대손실비율\***도 하락세

\* 개별 차주의 기대손실금액을 금융업권별로 합산한 후 해당 금융업권별 총 대출로 나눈 비율임

- 차주별로 보면 **자영업 차주의 금융업권별 기대손실비율**이 비자영업 차주에 비해 **높은 수준임**
- 금융업권별로 보면 **비은행 금융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의 기대손실비율**이 은행에 비해 **높은 수준임**

금융업권별 기대손실비율

(%)

|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영업 차주 |        |        | 비자영업 차주 |        |        | 합계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2013.6 | 2015.6 | 2017.6 | 2013.6  | 2015.6 | 2017.6 | 2013.6 | 2015.6 | 2017.6 |
| 은행 <sup>1)</sup>       | 1.02   | 0.70   | 0.63   | 0.46    | 0.35   | 0.24   | 0.68   | 0.49   | 0.39   |
| 비은행 금융기관 <sup>2)</sup> | 6.55   | 3.46   | 2.20   | 1.72    | 0.90   | 0.47   | 2.97   | 1.57   | 1.01   |
| 기타 금융기관 <sup>3)</sup>  | 5.22   | 4.37   | 4.26   | 3.04    | 2.27   | 2.40   | 3.96   | 3.12   | 3.14   |
| 전체 금융기관                | 2.53   | 1.65   | 1.47   | 1.08    | 0.70   | 0.57   | 1.60   | 1.04   | 0.90   |

주 : 1) 주택금융공사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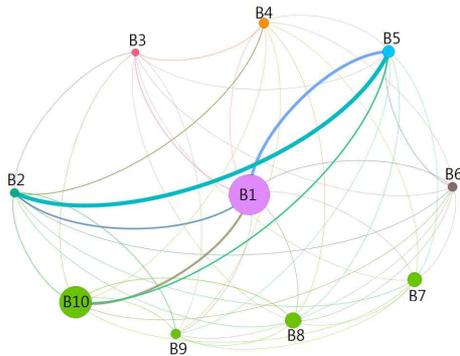
2) 저축은행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농·수협단위조합

3) 보험사, 카드사, 비카드여전사(할부사, 기술금융), 증권사·투신사·창투사·증권사, 보증기관(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, 서울보증보험, 지역 신용보증기관), 우체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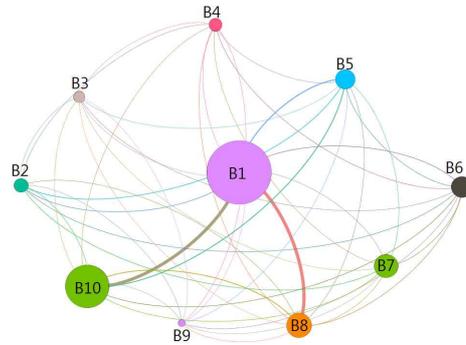
□ **차주별 기대손실액의 금융업권간 상호연계성**을 살펴본 결과, 2017년 6월과 2013년 6월간 **자영업 차주의 저축은행-단위조합의 연계성은 약화된 반면, 은행-보증기관 은행-비카드여전사간 연계성이 다소 강화** 되었음

## 자영업 차주의 금융업권간 기대손실액의 상호연계성

2013년 6월말 기준



2017년 6월말 기준



- 주) 1) B1 : 은행(주택금융공사 포함), B2 : 저축은행, B3 : 신한, B4 : 새마을금고, B5 : 농·수협 단위조합, B6 : 보험사, B7 : 카드사, B8 : 비카드 여전사(할부사, 기술금융), B9 : 증권사, 투신사, 창투사, 증권사, B10 : 보증기관(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, 서울보증보험, 지역 신용보증기관), 우체국  
 2) 각 금융업권별 원 크기는 해당 금융업권의 대출 건수를, 금융업권간 선의 두께는 동일 차주의 금융업권간 기대손실액 합으로 금융업권간 연계성의 크기를 나타냄

### (결론 및 시사점)

- 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은 비자영업 차주에 비해 대출성격별 가산금리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음
- 한편 자영업 차주의 금융기관 기대손실비율이 비자영업 차주에 비해 높은 가운데, 자영업 차주의 은행-보증기관, 은행-비카드여전사와의 기대손실액 상호연계성이 다소 확대됨
- 향후 글로벌 금리상승 등에 따른 국내 금리상승이 차주의 부도확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
  - 금융기관의 대출종류별 금리체계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체계의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  - 기대손실액의 상호연계성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여러 업권으로부터 중복 차입한 자영업 차주에 대한 신용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